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일대 273만3000㎡ 부지에 개발중인 어등산 관광단지가 당초 계획했던 테마파크 등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은 온데간데 없이, 골프장만 덩그러니 건설돼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민 휴식처 만든다던 어등산 관광단지 어물쩍 골프장만 개장하나

광주시 '무책임 행정'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광주시민의 휴식처가 돼야 할 어등산이 결국 일부 시민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27홀짜리 골프장으로 전락할 위기가 있다. 광주시가 골프장 선(先)개장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빚어 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 이의신청 마감시한인 19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대신 골프장과 명품 아울렛만 남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그동안 '골프장만 개장하는

일일 없을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 온 강운태 광주시장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꿀 경우 광주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민선시대 원칙없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8일 광주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원의 강제조정 마감시한인 19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가 전체 사업부지 273만㎡ 가운데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 117만 6000㎡(35만6000평)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9홀의 운

영 수역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부토록 하는 것이다. 시가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 왔던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등은 우선순위에 서 뒤로 밀리고, 골프장만 덩그러니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4월 9일 간부회의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테마파크를 잘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며, 골프장은 그 사업의 인센티브였을 뿐"이라고 지적했으나 이번에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자신의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시는 강제조정안 수용의 명분으로 사업자로부터 유원지 부지 등을 기부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사업자가 사업

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을 포기했던 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떠안게 된 셈이어서 자칫 광주시의 행정력과 시민의 열세가 낭비되는 부작용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는 또 기부받은 부지 중 13만 2000㎡(4만평)의 부지에 250여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한 뒤 신세계의 헬스 프리미엄 아울렛에 600여원에 팔릴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특정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 시비와 함께 지역내 의류업체 상인 등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신세계 명품 아울렛이 조성된 경기도 여주와 파주 등의 의류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애초 14만6000㎡(4만4000평)부지에 250실 규모의 특급 호텔 등을 조성하러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2만평 규모의 숙박업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사업자가 있을 지 의문이다. 시가 이같은 각종 부작용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과 원칙까지 무시하고 사업을 승인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을 제공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뉴스 초점

대선 3개월 앞... '文·安 단일화' 광주·전남 민심은 ▶관련기사 3·4면

호남후보 없는 대선 차분한 관망

18대 대통령 선거가 19일로 꼭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비교적 차분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우선 대선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19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정치권 밖의 안철수 원장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점이 꼽히고 있다. 호남 출신 주자가 없는데다 과거 노풍(노무현 바람)처럼 광주·전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만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문제인 후보의 독주와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 등으로 점철되면서 대선에 대한 지역 민심의 열기가 크게 식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주연에서 조연으로, 감독에서 관객으로 위치가 바뀐 것 같다"며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만들었던 열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전남의 민심이 '태풍의 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원장의 출마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등 대선 정국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각각이 탁월한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유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일보의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흐름은 순환구조고문에서 문제인 후보, 안철수 원장으로 이동했다. 정권 창출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따라 민심의 흐름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문제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주목하면서 대선 경쟁력을 토대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문제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은 물론 아권의 단일 후보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 등 호남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후보 단일화는 물론 대선 승리로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구태가 반복되는 등 정권 교체에 대한 아권의 진정성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경우, 아권 후보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이탈도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부터 실시한 광주일보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모두 두 자릿 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분산 경쟁력과 정권 교체에 대한 진정성을 토대로 최종 지지 후보를 결정할 전망"이라며 "현재까지는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선 막판, 정권 교체의 심장으로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겨울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

현지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

뉴질랜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함께 받는 정통영어 어학연수인 '제5회 겨울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에 글로벌시대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는 뉴질랜드의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29일부터 2월25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5회째 실시되는 이번연수는 타사의 해외기숙형 과외연수가 아닌 새하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에서 매일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연수에서는 엄선된 현지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영어권 문화와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최: 광주일보사
- 주관: 한뉴문화교육센터
- 연수학교: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6개 초·중학교
- 연수기간: 2013년 1월29일 ~ 2월25일
- 신청마감: 10월10일까지 선착순 40명
- 문의: (062)220-0555, 018-693-6604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 11. 12(월) ~ 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 11. 12(월) ~ 30(금)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주)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포스코가 들려주는 소재와 에너지 이야기

철을 만드는 게 아니래요!
철을 만들고 난 부산물로 친환경 탄소소재를 만들어요~

더 가벼운 미래 자동차도?
포스코 만드는 경량소재 마그네슘(Mg)과 친환경 에너지소재 리튬(Li)으로 미래자동차가 생깁니다~

제철소가 발전소도 된다고?
철을 만들며 발생하는 가연성 버려지 않던 전기를 만들어요.

우리동네에도 미니발전소?
우와~ 포스코 열원전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동네가 더 깨끗해 지겠구나!

소재도 에너지도 역시, 포스코
글로벌 TOP 소재·에너지 산업의 꿈과 희망을 향하여!

꿈과 희망이 자란다
소재와 에너지로 자란다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 싶은 꿈과 희망으로 철강을 넘어 소재와 에너지로 내일을 키워갑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는 더 나은 세상, 포스코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posco
이름 만큼 가치있습니다.